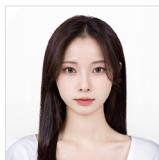


교육혁신원 학생교육혁신단 7기 소개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는 교육혁신원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고 비교과 프로그램 및 성과 활동을 장려하는 교육혁신원 서포터즈입니다. BOO스터는 직접 소통 채널을 관리하고 정기 회의에 참여하며 교육혁신원의 교내 이벤트,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 참여 독려와 HUFSAbility 활용법 홍보 및 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합니다.



고은심

영상콘텐츠팀
태국어통번역학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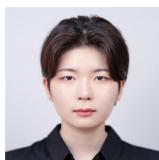
BOO스터 7기로 활동하며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학기 동안 취재홍보팀과 영상콘텐츠팀이 교육 혁신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 서로 활영을 도와주고 의견을 나누면서 합심해서 만든 콘텐츠 등 BOO스터 활동을 통해 단원들간의 협동심과 유대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좋은 동기들과 함께 신선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교육 혁신단 BOO스터 8기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김희정

취재홍보팀
행정학과, 20

BOO스터의 취재홍보팀으로서 활동한 한 학기는 제게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4년간의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아보라고 하면 고민 없이 BOO스터 활동을 꼽을 것입니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취재홍보팀, 영상팀에게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BOO스터와 함께라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BOO스터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향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심현서

취재홍보팀
화학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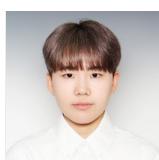
교육혁신원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BOO스터의 콘텐츠와 굿즈는 학우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지만, 제작하는 역할인 제가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원과 BOO스터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욱 소중한 한 학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교육혁신원의 알찬 프로그램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세은

취재홍보팀
경영학전공, 22

BOO스터 7기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열정 넘치고 능력 있는 팀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교육혁신원의 많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학우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혁신원 프로그램들과 8기 BOO스터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솔

영상콘텐츠팀
베트남어과, 20

BOO스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마음이 잘 맞는 동료들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BOO스터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며 기획하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활영하고, 밤을 새워 편집하던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매우 뜻깊고 기억에 남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들께 유익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홍보할 BOO스터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취재홍보팀
국제통상학과, 22

BOO스터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학우들에게 도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며 놀라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참신하고 재밌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획하던 모든 순간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 맞는 단원들과 함께라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HUFSAbility 그리고 교육혁신원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꼭 그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BOO스터 파이팅 !



조서현

영상콘텐츠팀
중국언어문화학부, 24

교육혁신원 BOO스터 활동을 하면서 한국외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홍보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갖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상편집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영상콘텐츠팀원들과 취재홍보팀원들이 있었기에 힘들지 않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교육혁신원 BOO스터 8기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ufs_iei



@hufs6514

7기 학생교육혁신단 활동 내용소개

BOO스터가 묻고, BOO스터가 답한다!

7기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과 그 이유는?



“

BOO스터 7기 포항 워크숍에서 한동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의 '자율전공선택제도'를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율전공선택제도'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으며, 캠퍼스 투어와 탐방을 통해 우리 대학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BOO스터 7기의 첫 워크숍으로 대학팀방과 더불어 자유시간을 즐기며 팀원들 간의 협동심과 유대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고은심



“

저는 5월의 어느 날, 봄 대동제에서 교육혁신원만의 부스를 운영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든든한 팀원들과 부스의 미션과 굿즈의 기획부터 운영, 홍보까지 논의하고 직접 진행해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BOO스터가 제작한 굿즈들 중, 단연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귀여운 Boo채를 나눠줬을 때 그것을 받던 학생들의 표정과 반응은 정말 잊지 못하는 순간 중 하나예요! 우리 교육혁신원을 더 많은 학우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희정



“

저는 활동 기간 동안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카드뉴스와 교육혁신원 소식을 담은 캘린더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배포했는데요, 매달 다른 컨셉의 콘텐츠로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학우들에게 잘 알리고 싶어, 취재홍보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기획, 제작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어 제게도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심현서



“

숏드라마 “3분 스펙”을 제작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분 스펙”을 제작하며 짧은 시간 안에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내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의 복잡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도, 한국외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들과의 협업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세은



“

'BOO스터의 인터BOO'라는 이름의 진로탐색학점제 인터뷰를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해야 인터뷰 대상자분의 이야기가 영상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매우 고단했지만 그만큼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BOO스터 활동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낀 활동이었습니다.

오윤솔



“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카드뉴스 제작 활동이 가장 인상에 깊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의 홍보 카드뉴스였는데, 기획하고 제작하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어떻게 홍보해볼까 고민하고 팀원들에게 공유하여 피드백 받고 업로드할 때마다 팀원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협력이 저한테는 너무 뿌듯하고 잊지 못하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BOO스터 회의할 때마다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BOO스터 최고)

이지원



“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저의 첫 속풀 촬영입니다. ‘키워드알림’ 홍보를 위해 처음 기획하고 촬영하였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도 신기하고 그때보다 영상콘텐츠팀의 활영과 편집력이 향상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네요. 흡스키워드 알림 아직 활용하지 않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알 홍보)

조서현

